



사막과 길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지구의 기후가 바뀌면서 이상기온, 가뭄과 홍수, 태풍과 산불로 전 세계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환경의 변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사막화 현상이다. 지구 대륙의 1/6 은 사막으로 덮여 있다. 남극을 제외한 열대사막 중에서 가장 큰 사막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사하라 사막이다. 사하라 사막에서도 사람들과 물고기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양의 동물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사실은 그 곳이 한때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기가 좋았다는 증거가 된다.

창조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후에 화산 폭발로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갔고 바닷물의 다량 증발로 전 지구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

사하라 사막도 한때는 악어가 많이 살던 흔적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던 곳이나 지구의 기후 변화로 사막화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사막화는 아프리카 대륙의 65% 가 사막 혹은 건조지대로 변화되고 있고, 알제리의 산림면적은 국토의 1% 도 채 남지 않았으며, 국토의 50% 가 산림이었던 에티오피아는 2.5%의 산림만 남았다는 사실로도 단면을 볼 수 있다.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을 사헬 지대 라고 하는데 사헬지대는 과거에 서아프리카 지방에서 강성한 지역이었다. 서쪽으로 흘러 대서양으로 통하는 니제르 강을 끼고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니제르 강을 통해 유럽으로부터 중개 무역이 활발했지만 사헬 지역의 사막화가 근래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하라 사막 남쪽에 걸친 거대한 초원 지대였던 사헬 지역의 사막화는 지구 온난화로 수증기 순환의 평형이 깨지면서 그 지방에 가뭄이 심해진 원인도 있지만 그 영향은 적은 부분이다. 그보다는 유럽인의 아프리카 식민지배로 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이 폭증하면서 문제가 가속되었다. 갑자기 늘어난 인구를 위해 많은 경작지를 개간하고 땃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림 벌목이 늘면서 사막화가 급격히 빨라졌다. 가뭄이 겹치면서 1972-1973년에 수십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죽었고 1982-1985년에는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겪었다. 농민들은 지난 수년 동안 곡물 수확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막화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것인데, 아프리카 20개국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남쪽을 따라 서쪽 끝 세네갈부터 아프리카 동부 홍해에 위치한 지부티까지,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긴 초대형 숲의 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하라, 사헬 이니셔티브'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효과는 10년이 지난 현재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을 사막을 지나는 과정이라고 비유한다. 변화무쌍한 기후 변화와 모래바람으로, 길의 모양도 변하고 언덕 산이 여기저기로 바뀌어 길을 잃기 쉬운 황량한 여정 길,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바른 방향만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바른 인생길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는가? 아프리카의 사막화로 고통 당하는 아프리카의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 드린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탐방

잠비아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잠비아 루사카 지역 치소모 아동 클리닉 지원을 통해 아동의 질병 예방을 돕고 있습니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비 50%, 말라리아 검사비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과 에이즈 환아들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Zera 국제보건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오픈 예정) 잠비아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여 clinical officer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는데요. 국제보건대학 과정을 통해 잠비아 현지 clinical officer를 양성하여 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국제보건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현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AFF 가족

허일봉&전미령 선교사(지부장)





코로나시대와 의료선교의 새 지평

박상은 박사 (샘병원 미션원장,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보건의료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미국의 민영의료 시스템이 초토화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의 공공의료시스템마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어떤 재난에도 촉촉한 안전망으로 극복해온 일본과 싱가포르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만큼은 안전부절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식민지통치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유럽과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역할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며, 이 자리를 대신해온 중국과 일본, 인도 등도 이번 전염병의 대처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프리카국가 지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 만큼은 한층 더 높은 신뢰를 보이며 이전의 K-Pop, K-Drama 한류에 이어 K-방역, K-의료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로 이를 극복했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교회는 대형화되어 큰 건물들이 올라가며 수만 명이 운집하는 대형교회로 성장하였지만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 성도들을 흠뻑서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각 일터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흠뻑서서 교회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그 흠뻑서서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 애타게 애원하는 제3세계를 향해 달려 나갈 절호의 선교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아울러 해외선교 역시 포스트 코로나에 걸맞게 비대면 언택트 디지털 방식으로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진행 중인 무힘빌리 음로간질라병원 역량강화사업도 전문가 파견 대신 원격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줌(ZOOM) 앱을 통해 세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환자시술 장면을 실시간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교육을 하였는데 현지에서 이를 숙지하여 신장결석을 초음파 쇄석술로 잘 치료할 수 있었다. 다양한 원격 영상채팅을 통해 이전보다 더 입체적이고도 세밀한 교육이 가능해 졌으며 현지에 한 명의 전문가가 가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기에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을 수 있다.

선교는 또한 공동체의 회복이다.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 한다고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먼 아프리카나 남미의 전염병이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지구촌은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이다. 존 스토틀 목사님이 강조한대로 하나 뿐인 지구에 단일 인류가 살고 있는 운명공동체이기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헌신된 국제주의가 요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단일 공동체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선교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선교는 또한 공동체의 회복이다. 우리나라만 방역을 잘 한다고 청정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 먼 아프리카나 남미의 전염병이 바로 나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코비드 팬데믹을 통해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지구촌은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이다. 존 스토틀 목사님이 강조한대로 하나 뿐인 지구에 단일 인류가 살고 있는 운명공동체이기에 민족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헌신된 국제주의가 요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단일 공동체로의 진입을 의미하며 이는 새로운 선교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깨닫게 된다.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단백질 덩어리가 이토록 전 인류를 파멸로 가져올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릴 적 엄마 심부름으로 막걸리 찌꺼기를 얻으러 양조장을 다녀오곤 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넣어 밀가루를 반죽해 아랫목 이불 밑에 넣어두면 금세 큰 양푼 가득 빵이 부풀어 오른다. 작은 누룩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작은 말다툼 하나로 가정이 깨어지고 소소한 실수로 회사가 망하기도 하며 별것 아닌 감정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죄는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나를 점령하고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사랑을 불러일으키어 가정을 세우고 회사를 살리며 나라를 부흥케 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여 전염병이 창궐한 지역으로 의료진을 이끌어내며 아골골짜기 빈 들에도 복음 들고 가게 한다. 사랑은 그냥 사그라지지 않고 활활 불타올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변화시키며 열방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한다.

예수의 사랑은 누룩보다 강하여 나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시어 어디서 무엇을 채취하여 증폭하여도 죄의 유전자 발견할 수 없게 회복시키신다. 주님의 사랑은 나를 거듭나게 하시어 나의 모든 유전자가 이제는 말씀으로 지으신 원래 형상을 되찾아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뀌어 당당히 하나님 광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제 코로나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하나님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코로나왕관을 우리에게 씌우실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장벽을 뛰어넘는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14-732-1484 (미국) +82)2-6248-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english.modoo.at (영어)

🌐 www.africaff.org (한국어)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Africa Future Foundation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121000358
- SWIFT 코드: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0. 7. 1 ~ 20. 9. 30 / 재정보고

Simon Back, GugHyun Chang, Euiwon Chough, Jin Chul Jhung, Andrew/SoYoung Kim, JinHee Kira, David Nam, Andrew Pae, Susie/Moses Park, Micheal Yang, 김재숙 송영 양해중 유재열 이성숙 이홍철 황길남 새벽이슬교회 OC한인교회 북가주Joyful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양페인팅

COVID 특별헌금: 김홍식 OC한인교회, Micheal Yang, JinHee Kira
지정헌금: 송은석/이원희

* 이름이 누락되신 경우, AFF 사무실(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AFF남아공지부 15,000불, 남아공 선교사 2,000불, AFF 부룬디 지부에 5,000불을 보내 긴급 구호와 방역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수입		지출	(단위: \$)
전기이월	52,073.19	사무용품비	269.49
일반헌금	9,670	사업비/Brundi	5,000
COVID-19 특별헌금	2,350	면세법인 신청비	925
지정헌금	1,000	인쇄비 회보 및 봉투 등	508.31
분기 수입	13,200	지출 총액	6,702.80
총수입	65,273.19	잔액 (차기이월)	58,570.39